

“일흔 나이에 눈 뜨니 세상이 다 詩로 보여”

고마운 선생님

비평들이(김삼례)

선생님 덕분에 온갖 애를
 뉘나 감수 합니다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께 손 풀어 주어서
 이제 주저도 없이 영연씨
 애까지가 저런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중우를 해보게
 선생님 무척 선생님
 고맙습니다
 애까지도 편하는 애까지 선생님
 몸도 잘 갖춰는 내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코스 코스

함평 해보면 '산내리 할매들' 첫 시집 '산내리, 청춘학당'

3년전 잠월미술관장 부인 임혜숙씨 도움으로 한글 익혀
 '왕초' 김현순 할머니 등 6명 손수 지은 시·그림 실려
 내년 1월11일까지 시집 발간 기념전...내일 오픈 잔치

평생 '까막눈'으로 살아온 김삼례(79) 할머니는 2년 전 한글을 깨우쳤다. 한글을 알고 나서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삶의 큰 즐거움이 됐다. 즐거움이 생기니 수년전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폐암이 아속하기만하다. 그래서 최근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땀글땀글 돌면서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땀글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선생님 덕분에 편지를 써봅니다/ 이력 게 편지를 써보는 것이/ 항상 원이 맺는데 / 이 만지라도 써서/ 원이 업써/ 선생님 덕으로/ 이력이라도 쓰고 더 사탕쓰면 조 깨신데/ 병만 알타가 죽게 생게서/ 너무 설푸다/ 언제 나서라고 사라볼까/ 세상도 살기 시리지내"(땀글이 김삼례의 '편지')

'나'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세월'을 살아온 함평 해보면 '산내리 할매들'이 첫 시집 '산내리, 청춘학당'을 펴냈다.

이 시집에는 삼례 할머니를 비롯해 왕초 김현순(83), 산토끼 정정옥(77), 나들이 김순희(76), 암전이 윤영자(76), 억척이 김삼순(67) 할머니 등 6명이 손수 쓴 시 31작품과 그림이 함께 실렸다.

아직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서툰 평균나이 76.3세 할머니들은 조그마한 눈과 발이 있는 산내리 작은 마을에서의 삶의 흔적을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시들로 보여준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시들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토끼처럼 씩씩하게 앞장서서 다닌다고 해서 산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정옥 할머니는 "입동"이라는 시에서 "입동이 지나니/ 모든 상물이 다 죽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집에 천사의 나팔꽃은/ 너무나도 예뻐고 꽃도 많이 피었어요/ 상물은 다시 봄이 오면 사라나서/ 잎도 피고 꽃도 피는데/ 내 인생은 한 번 가면/ 도라오지 않습니다"고 노래했다.

이번 시집은 잠월미술관(관장 김광옥)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관장의 아내인 임혜숙 광주 광산구 산정중학교 교사는 우연히 할머니들과 벽화를 그리다가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월 한국에서 가장 작은 학교인 '산내리 청춘학당'을 만들어 한글 수업을 시작했다. 시인으로 만들어주고 시집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가', '나', '기', '가'로 시작한 첫 수업에서 할머니들은 낯선 한글이 어색하기만 했다. 나이 탓에 배움은 느렸지만 이제는 책도 읽고, 자식들에게 편지도 쓴다. 예전에 글을 몰라 마을 이장에게 불러왔던 공과금 용지들도 척척 읽기 시작했다.



산내리 할머니들과 임혜숙씨, 임보라 학예사가 환하고 웃고 있다.

한글을 배우고 시를 쓰기 시작하니 떨어지는 낙엽도,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도, 집 앞에 피어 있는 개망초도, 소쩍새가 지저귀는 소리로 모두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인'이라는 소박한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꽃은 양장맞고/ 예쁜데/ 이름이 왜/ 개망초냐"(정정옥의 '개망초')

산내리 청춘학당 반장인 왕초 현순 할머니는 "속새야 슬프게 울고 있구나/.../ 왜 울고 있니/ 집에서 새끼가 떨어져주었니/ 연말에 할머니가 그랬다/ 소쩍새는 이산저산 밤낮없이/ 도라다님서 슬프게 울고 다닌다/..."고 자신의 아픔을 소쩍새의 모습에 투영시켰다.

순희 할머니는 평일에는 딸 집에서 일을 거들어주다가 주말이면 산내리에 온다고 해서 나들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 가타요/ 겨울이 오면 추어요/ 눈도 오고/ 눈이 오

면/ 나들이 우리집에 올수가 업써요/ 우리집에 못오면 어떻게 해요/ 아쩔수 업시 딸집에 사라야지요"(김순희의 '산내리 우리집')

영자 할머니의 시 '내영감'에서는 평생 동반자인 남편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삼순 할머니의 '시어머니'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읽을 수 있다.

잠월미술관은 시집 발간과 함께 내년 1월11일까지 '산내리, 청춘학당' 합동시집 발간 기념전을 연다. 오는 13일 오픈식에서는 산내리 어르신들이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어르신들로 구성된 한살밴드 공연이 열린다.

한편 산내리 할머니들은 수년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전국에서 오는 고민을 편지로 해결해주고,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모습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의 070-8872-671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산내리 우리집

내일이 김봉희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추어요.
 눈도 오고
 눈이 오면
 나들이 우리집에 올수가 업써요.
 우리집에 못오면 어떻게 해요.
 아쩔수 업시 딸집에 사라야지요.



THE FOUR SEASONS



비발디의 사계, 인간의 사계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바로크 컴퍼니' 초청 콘서트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13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바로크 컴퍼니'를 초청하여 '비발디 사계 프로젝트 : 시가 있는 바로크 여행'을 주제로 2014년 마지막 토요콘서트를 개최한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수많은 협주곡 중 가장 유명한 협주곡인 '사계'는 4개월의 분위기와 색채를 즐겁고도 섬세하게 표현한 걸작이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과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묘사한다.

바로크 컴퍼니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전 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앙상블로 고(古) 음악을 미술, 무용, 영화 등 타 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서도 오리지널 현악 오케스트라가 아닌, 리코더가 포함된 소규모 편성으로 내레이션과 음악을 통해 '사계'를 그림동화처럼 들려줄 예정이다.

무료 공연. 7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 문의 062-570-7012. /김경민기자 kki@

보살핌·배려의 모성

예총회관 백련갤러리 '어머니의 눈으로' 전 한·미 작가 등 참여...세월호 이미지 더해져

전시장 한가운데를 차지한 이때라 작가의 커다란 빨간 하이힐이 눈에 들어온다. 주위에는 여성들이 신었던 다양한 종류의 신발들이 놓여 있다. 신발 사이에 묻혀 있는 스피커를 통해 우리네 어머니들이 마지막에 울조리는 메시지가 들린다. "한 번도 너를 잊을 수 없지"라고.

있고 있던, 아니 우리가 모르고 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광주 예총회관 백련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어머니의 눈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윤석남·김인순·박영숙·정종미·유미옥·윤정미·홍현숙·김은주·변경섭·송숙남·이매리·탁기행·박김현준·추현경·김희순씨 등 국내 작가와 미국 작가 5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앞서 지난 2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102회 대학미술협회(College Art Association) 콘퍼런스 기간 열려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모성의 본래 의미인 '보살핌'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사회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던 이념이 이번 전시는 '어머니를 위한 앨범', '깨어나는 여신' 등 두 주제로 구성됐다.

어머니를 위한 앨범에서는 어머니로



산드라 슈트먼 작 'Five little dresses'

만들어져 가는 여성의 일생을 만날 수 있고, 깨어나는 여신에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신화적,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대지의 어머니가 주는 치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윤석남 작가의 'Green Room', 여성 내면에 담긴 부처의 이미지를 표현한 정종미 작가의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 등이 인상적이다.

시카고 전시와 달리 이번 광주 전시에서는 세월호 관련 이미지들이 더해졌다. 탁해성 전시 감독은 "세월호 참사는 '돌봄'과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의미를 가진 모성 본래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난 것 같아 추가로 이미지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62-528-92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영태씨



노희설씨

김영태 화백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서양화가 김영태 화백 등 4명이 '2014년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자로 11일 선정됐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은 이날 제21회 광주예총문화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문화상 대상, 특별우수상, 공로상 등을 선정했다.

대상은 김 화백 이외에 노희설 극단 줄거운 친구들 대표, 박신영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양동현 (주)건축사무소 AD그룹 대표가 받았다. 또 특별 우수상에는 김유정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서영(서영무용단장), 표윤미(전남도립국

악단 상임단원)씨가 선정됐다.

공로상 수상자는 김종원(조선이공대학교 교수), 정찬성(정찬성 국악예술원장), 이숙영(목포과학대 교수), 탁현숙(조선대 조빙교수), 이묘숙(송은 갤러리 관장), 조홍선(사진작가), 원광연(광주연극협회 부회장), 강영숙(가수), 김관도(참사랑요양원 이사장), 김용원(음악협회 사무국장)씨 등이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4시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예총창작발표회와 함께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지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우편 KORAIL 한국관광공사
 광주본부 광원동역사

12월 24일(수) 남이섬·춘천	12월 31일(수) 정동진 새해일출	12월 31일(수)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12월 31일(수)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무박2일 기차여행	무박2일 기차여행 (무궁화호)	무박2일 기차여행(광주영남)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무박2일 기차여행(광주송정영남)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시간	시간	시간	시간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2:0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21:0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1:1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06:53 정동진역 도착 후 출발	23:24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23:32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07:00 정동진일출/천곡동굴/추암해대바위/목호항어시장 자유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임/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임/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6:18 춘천역 출발	15:30 동해역 출발	18:56 서대전역 출발	19:25 서대전역 출발
22:14 광주역 도착	22:50 광주송정역 도착	22:00 광주역 도착	21:09 광주송정역 도착
성인 85,000원~ 소아 80,000원~	성인/경노/청소년 115,000원~ 소아 8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